

학교	한글	소피아 대학교	성명	한글	안드레예바 이리나	생년월일	년	월
	영문	Sofia University		영문	Irina Andreeva	학년	4	

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.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소름을 많이 하고 서로 도와줘야 한다. 배려란 바로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남을 도와 주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. 그런데 폭력과 부정에 가득 찬 현실에서 남을 위한 생각과 노력을 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고 있는 건 같다. 왜 그럴까?

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. 먼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족끼리나 작은 사회 단체로 같이 살고 있었다. 그 때는 병에 걸리거나 장애자인 사람이 많았으면 친척이나 이웃들은 그를 위해서 사냥을 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. 우리가 그 시기의 사람들은 동물과 비슷한 야만인으로 여기는데 그들은 우리 현대인보다 약해자를 위해서 배려를 잘 했다.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지난 100여년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했기 때문이다.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강해자와 약해자,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다. 형등이 없고 공평하지 않은 제도이다. 먼 옛날의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배

학교	한글	소피아 대학교	성명	한글	안드레예바 이리나	생년월일	년	월
	영문	Sofia University		영문	Irina Andreeva	학년	4	

러를 받았던 장애인들은 오늘날에 정부
 에서 도움을 별로 받지 않고 많은 곳
 에 접속이 없다. 심각한 병에 걸린 사
 람들도 자주 남의 기부에 의지해야 하
 는데 우리 사회의 만연해 있는 탐욕
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
 다.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
 은 사람들은 마음에서 공감과 포용을
 배웠으며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
 배웠다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
 제는 갈아가고 있으며 나아질 희망은
 없어지고 있다.

TV로 가끔 어렵고 불쌍한 이웃을 도
 와 준 사감의 이야기도 볼 수 있는데
 더 자주 공감과 배려가 없는 예를 볼
 수 있다. 시리아 피난민 위기, 미국의
 건강보건의 제도의 없애기, 등 마음을 아프
 게 하는 예를 엄청 많다. 또 배려를
 하는 사람은 처벌도 받게 된다. 예를
 들면 불가리아에서 사는 이탈리아인 카
 톨릭 목사는 시리아 전쟁을 피하려고
 하는 가족을 불가리아로 오려고 도와
 주 싶었다. 그런데 그가 사는 도시의
 사람들은 인종차별에 기반으로 그것에
 반대했다. 시리아인 가족을 오지 못하게

학교	한글	소피아 대학교	성명	한글	안드레예바 이리나	생년월일	년	월
	영문	Sofia University		영문	Irina Andreeva	학년		

다가 목사는 처벌을 받았고 이 탈리아로
돌아가야 되었다. 이러한 원망스러운 것
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배려를 하면
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.

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
있을까? 다시 폭용과 공감을 무엇보다
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지 배워야
할 것 같다.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
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친한 사람
들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성공의 만족스
러움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.

"가난한 사람들은 배려를 잘 한다"고 들
란다. 그래서 우리 배려가 부족한 사회
를 향상시키려면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
을 버리고 사람 사이에 관계에 집중하
면 늘 남을 도와 주려고 노력해야 한
다.